

T\_M\_046

## 송당본향 소천국광 백주할망

소천국은 하상천주지국에서

날 적에

가는 모든 줄 알로서

탄생되었다.

백주할망은 왕대웃성

그림질 알에서 탄생되었다.

소천국대감님이

천기를 둘러 볼 때에

가난하고 선한 여

살 수가 옵슬 때에

“제주 영기가 제일 좋댄”

하연,

제주도로 초자왔다.

제주도를 오니

하라영산을 올랐다.

대강녹, 소강녹, 노리, 사슴,

산톳, 꿩, 궁작노리바께

눈에 보이는 게 옵셨다.

배는 고파지고 허니,

앞바른 마세기총으로 마쳐,

생식을 허여,

대노리, 소노리, 대돗, 소돗을 먹어

가죽옷을 입어 살아가니,

웃통은 청달피

알통은 흑달피

소록비감티 소록비보선

출리고

항상 제주 십삼장옛

중생을 먹고 살아.

백주할마님은

일곱술 적이 얘기를 배여.

아방은 백정싱이고

어명은 짐씨 부인이다.

천왕공수 지왕공술 올라가

삼년을 만찬 내려올 적인,

뜰애기는 불써  
일곱술 적이  
중이 애길 생겨부난  
애길 배였는디.  
백정싱과 짐씨부인이  
내려와서  
“양반의 집 못씨겠다.”고.  
무쇠철갑을 출려  
물에 띠와부니.  
정이정당 열룬이로 올라오라.  
소천국 대감님은  
할로영산으로,  
일수장을 내려오고 불 때에  
정이정당 열룬이  
악근작지 한작지로  
무쇠철갑이 올라오는 것을  
보아.  
“너가 귀신이냐 생인이냐?”  
문주를 헛고 보니.  
무쇠철갑 쪼꼽에서 소리가 나.  
“내가 귀신이 이런 디 올 수가  
있습네까 생인입네다.”  
무쇠철갑을 읊안 보니.  
아들 얘기 일곱을 난  
곱딱흔 백주할망이 있었다.  
소천국은 백주할망 손을  
심고.  
“나광 골이 살자.” 헛여,  
손당으로 올라갔다.  
어욱밭, 맹개남밭에  
어욱광 맹개낭기 탕천호니,  
애기들은 추낭섶을 헛연  
덕거주고  
부인님은 애길 질루고.  
소천국은 산쟁이질을 헛였다.  
산톳괴기 궁작노리를  
잡아다가 애길 맥여 살리고,  
소천국대감이 백주할망광

배합되난.  
뜰만 애길 으듭을 배였다.  
이 얘기를 낳아 놓을 적에  
백주할망이 말을 허되.  
“우리가 이 얘기를 키우쟁  
흐민, 산쟁이질론 못사니.  
농수를 집시다.”  
소천국은 용잠대, 용멍애.  
용가린석 출리고,  
쇠는 금강산 웃학서 운절방이.  
암쇠 숫쇠 둘을  
제주산에 보내여 주난.  
그 쇠를 질뢰서  
아홉 해만에  
쇠도 새낄 혼 해에 흐나씩  
아홉을 낳 놓아.  
소천국대감님은  
큰 쇠 부릉일 물아가지고  
하라영주산 앞이  
갈만 혼 밧을 갈아,  
지장씨 아홉말지기,  
풋씨가 아홉말지기,  
콩씨가 아홉말지기를 갈며는  
백주할망이  
둘안 온 아들 으듭광  
소천국대감님 몸에 난  
뜰 으듭을  
멕영 살릴 것이다.  
소천국 대감님이  
밭갈기를 권농해서 갈았다.  
삼신산이 넘어가다가  
소천국대감님 밭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가 고프니  
징심이나 흑곰 주시요,  
시장이나 물령 갈쿠다.”  
소천국대감이 말씀허되,  
“질매 앞에 가고 봐라.

밥이 있다.”  
소천국대감님은  
밥이 예레듭동이  
국이 예레듭동일 먹어야  
식양이 차는 성인인데.  
삼신산이  
국 아홉동이 밥 아홉동이.  
도합, 예레듭동일  
다 먹어두고 갔다.  
소천국대감님이 밧을 갈다가  
시장이 되여,  
밥을 먹고자 흐니.  
“삼신산이 혼동이나 먹을까?”  
흐 게.  
다 들러먹고 가부렸다.  
아젠 밭갈단 농이를 잡아  
새비낭게 불살란  
구워 먹으난 양이 안찼다.  
경흐여도 배가 고파.  
감은암쇠 흐나를  
다시 뱃겨 먹어사 양이 찼다.  
쟁기를 쇠가죽으로 됑여  
뱃부기에 대연 밧을 갈암시난,  
백주할망은  
윽은 애긴 걸루고  
두린 애긴 업고 안고  
흐연 밭딜 오고 보니까.  
소천국 대감님이  
쇠가죽을 쳐매고  
밧을 갈암시니.  
“어찌해서 이렇게 밧을 깊네까?”  
“그런게 아니고 수실이  
이만흐고 저만흐여  
나대로 밧을 간다.”  
백주할망은 후욕을  
소천국대감님께 흐여,  
싸움이 되니,  
살렴이 분산된다.

백주할마님은 부회가 나니  
부름목 웃손당데레 올라산다.  
소천국대감님은 훌 수 엇이  
알손당데레 내려산다.  
소천국이 백주할망광  
사념을 갈릴 적이.  
오백장군 오백서 뜰을  
소첩을 삼아 살아간다.  
백주할망은 웃손당서  
고사리를 걱그고  
낭<sup>으</sup>름을 탕 먹으멍 살아가는디.  
백주할망 일곱술 적에  
중의 몸에 낳은 으<sup>으</sup>듬 아들  
가운데  
쳇쳇 아들을  
공주의 도 선싱에게  
글공비를 들어갔다.  
흐니.  
이 얘기 일름을 ‘송곡성’이라  
지와.  
글공빌 흐는디.  
일곱술 나난  
“애비 엇는 호로주석이라”  
벗질에 또롬을 받았다.  
송곡성인 어명신디 오라  
“아방 간 딜 일러줍서” 흐여.  
오백장군 뜰 소첩흐여  
살아가는 아방국  
소천국을 츄사갔다.  
송곡성?라  
“저게 너의 아방이다.”  
흐니.  
송곡성은 아방 독<sup>으</sup>립에  
텃짝 돌아지여  
안을 적에,  
아바님 쉰대자 삼각수를  
심어 등겼다.  
석자두치 공방대도

이리저리 흔든다.  
소천국은 생각할 때.  
“이 주식도 불효주식이다.”  
당장 죽일랴고 헛다가  
오백서 뜰애기 첨각시가  
말을 헛되.  
“죽이지 말고  
앞이서 보기 싫으니까  
무쇠철갑을 해서  
바당데레 강 드리쳐부는 게  
좋겠다.”  
무쇠철갑을 헛여 들여.  
그 쏘곱에 앗져  
동해용궁에 띠왔다.  
무쇠철갑은 요왕황제국일  
들어갔다.  
무낭 상가지에  
무쇠철갑이 올랐다.  
풍운조화가 일어났다.  
요왕이 말을 헛되.  
“큰뜰애기가 나고 봐라.  
뭔 펜식이 있느냐?”  
“아무것도 엇습네다.”  
“셋뜰애기가 나고 봐라.”  
“아무것도 펜식이 엇습네다.”  
“말줏뜰애기가 가고 봐라.  
뭔 펜식이 있느냐?”  
“무낭 상가지에 난데 엇는  
무쇠철갑이 올랐습네다.”  
“큰뜰애기가 강 들려오라.”  
“귀도 들싹흘 수가 엇습네다.”  
“셋뜰애기가 강 안아오라.”  
“귀도 들싹흘 수가 엇습네다.”  
“말줏뜰애기가 강 안아오라.”  
용궁의 제삼공주가  
그 무쇠철갑을  
아방왕에 안아왔다.  
용왕국이 말을 헛되.

“큰뜰애기 읊르보라.”  
“울릴 수가 엇습네다.”  
“셋뜰애기 읊르보라.”  
“울릴 수가 엇습네다.”  
“말줏뜰애기 읊르보라.”  
말줏뜰애긴 무쇠철갑 속방에  
외무 누다 돌단  
손으로  
탁 외우 칠 적이  
무쇠철갑이 질로 싱강  
읊르졌다.  
옥골은 도령님이  
공주의 도 책주와 필먹,  
수지를 안고 앗았다.  
용왕국이 말을 흐되,  
“어딜로 오는 도령이 되느냐?”  
“조선국 제주도에서 들어 온  
도령됩네다.”  
“어딜 가는 질이냐?”  
“강남천주국 적병 막으레  
가는데, 풍우에 짓겨서  
용왕국에 들어왔습네다.”  
용왕국이 보니,  
“천하맹장 골은 인물이라.”  
생각하고,  
“큰뜰애기 잘 대접하여라.”  
도령님이 눈을 떠 부래지도  
아년다.  
“셋뜰애기가  
그려면, 접하라.”  
눈도 안떠 부랜다.  
“말줏뜰애기가 접대하여 봐라.”  
“도령님, 방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제사, 서른 으뜸 이빠디가  
허우덩싹 웃이멍  
수랑으로 들어간다.  
용궁의 물줏뜰애기가  
토영칠반에 육산포룩을

곳추와,  
상을  
느는듯지 출리고  
기는듯지 들러놨다.  
송곡성은 눈을 떠 안배린다.  
“제주도에서 오신 맹장님은  
음식이 좋나 느지나  
어째서 배린 채도 아녀십네까?”  
송곡성이 말을 헌되,  
“나는 괴기라도 전머리,  
독이라도 전머리,  
쇠라도 전머리,  
돛이라도 전머리,  
늘피, 늘돛간, 응 전머리로,  
거를 먹어야  
내 양이 찬다.”  
용궁의 말줏뜰애기가  
용왕 아방국에 들어가  
이 연유를 술렀다.  
용왕국이 생각헌되,  
“사위 손 헌나야  
못대접 헌느냐?”  
헌를에 돛도 전머리,  
쇠도 전머리, 독도 전머리로  
잡으니,  
헌로 일은다솟머릴 먹었다.  
석돌열흘을 멱여가난.  
용왕국의 동창궤 서창궤  
남창궤가 비여간다.  
동·서·남·북창궤가 빌 적이.  
“뜰은 출가외인인디  
사위 손 헌나로  
용왕국이 망헌게 내빌 순  
엇다.”  
사위 손광 말줏뜰을  
무쇠철갑 쏘곱에 들여놓완  
용왕국 백겼딜로 내쳤다.  
무쇠철갑은

강남천주국으로 또 들어갔다.

백몰래 악근작지로

흔 구을 들어갔다.

밤에는 불이

동서남북이 훤 흐고,

낮이는 글소리가 윙윙 흐고,

이럴 때에

천주국이서 풍운조화가

일어났다.

동네에는

“왕봉수가 점을 잘 친다.”

흐여,

유신하를 불러서,

“왕봉수를 참내시겨라.”

흐여,

천주국이 말을 흐되,

“어떤 일로

밤이는 갯구 백몰래 구으로

불이 훤 흐고,

낮이는 글소리가 윙윙

들리느냐?

점을 지여보아라.”

왕봉수가 말을 하되,

“이건, 천하맹장님이

천주국을 도우려 온 것

곧읍네다.”

“그러면, 천하맹장이면

눈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문답할 때,

왕봉수가 재추 말을 이르되,

“천하맹장이 되기 땀세

보통으로 민간 사름이

볼 수가 엇습네다.

천주지국 대왕님이

갑옷 갑투길 곶추고

장검 비수검 출리고

일천백매가 가서 북향스배를

드럼시민 알 도래가 있습네다.”

경 흐니,  
천주지국이 그영 다 출리고  
간, 북향스배를 드리고,  
“귀신이건 귀신대로,  
생인이건 생인대로  
말씀을 드리고,  
눈 앞에 보여주십서.”  
흐니,  
무쇠철갑이 눈을 읊었다.  
옥골은 도령이  
용왕국 말줏뜰애기광 골이  
들어 있었다.  
“어디서 온 맹장님이  
되십네까?”  
“천하해동 조선국 제주도에서  
들어온 문곡성이 됩네다.”  
송씨 성을 문씨로 써견  
골았다.  
천주지국이 말을 흐되,  
“어째서 이 곳을 오랐읍네까?”  
“천주지국에 난이 나니,  
적병을 막으랴고 오랐습네다.”  
천주지국이 문곡성광 손을  
잡고 악수를 흐였다.  
천주지국은 문곡성을  
'제일도원수'라는 직함을 지왔다.  
갑옷, 갑투길 내여주고,  
억만대병 억만군수를 내여줬다.  
천주지국의 난을  
석돌열흘 백일만이  
평정을 시겼다.  
천주지국이 말을 흐되,  
“천하를 반을 갈라주느냐?”  
“것도 마오리다.”  
“천금상에 만호를 주면  
어찌 흐느냐?”  
“것도 마오리다.”  
“게멘, 소원이 뭐이냐?”

“나를 조선국 제주도로  
보내여 주십시오.”  
천주국은  
황제흔언씨 수레를 지었다.  
황제흔언씨가 수레를 지고  
거기 굴량을  
일천석 곳추고  
일천벵마 삼천군벵을  
거느리고 제주를 입도했다.  
소섬 동어귀로 들어올 때,  
방포를 놨다.  
굴왓칫뜰애기가 나스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흐여가니,  
안종다리 밧종다리로 들어왔다.  
마침, 정이 고보임제가  
닻줄을 끊어왔다.  
닻줄을 심어 올 때에  
돛 전며릴 잡았다.  
초나록떡, 백시리, 백돌래,  
차귀 당산메를 지여서  
접대를 흐자고 훌 때에,  
“어느 누가 춤을 잘 추느냐?”  
흐여,  
광선이를 불르고  
옥단이를 불르고,  
허무녀를 불르고,  
방광을 쳤다.  
배가 한곳을 잽히지 못했다.  
청기, 적기, 백기, 흑기, 황기,  
오색기를 내돌리고,  
“올라오십시오.”  
흐고, 절을 훌 때에  
한곳을 잽히게 되였다.  
안종다리 밧종다리로  
들어올 때에  
소천국광 백주할망은  
방포소릴 듣고,

정하님에게.

“이게 어떤 일이냐?”

물을 때.

“소천국 아드님

일곱술 적이 귀양보낸 아들이  
들어오십네다.

하니,

“왜, 일곱술 적이  
무쇠철갑에 담아  
물에 티운 주식이  
살아 올 리가 있겠느냐?”

문곡성은 부인을 거느리고  
일천벵마 삼천군벵을 거느리고  
하라영산을 올랐다.

이 때에 어멍은 겁난  
웃손당으로 돌아나불고  
아방은 알손당 고부니<sup>목</sup>를로  
돌아나불고.

둘셋 동싱은  
삼방산으로 돌아나  
삼방산신이 되였다.

싯셋 동싱은  
대정 광정당 부름목  
산신이 되였다.

늬체는 제주시내 부름목  
내왓당 산신이 되였다.

다솟체는 짐녕 괴뇌깃또  
산신이다.

으솟체는 거루 명당또  
산신이다.

일곱체는 조천면 드리 송당  
산신이다.

으듭체는 토산당 부름목

산신위를 받았다.

송씨부인 중몸에

배연 오단 난 뚫

으듭성젠

소천국몸에 난 아들광

서로 배합이 되여.  
버금 낳은  
아들<sup>조</sup>손 일은<sup>으</sup>들은  
각서본향으로 배치시겨 버렸다.  
억만대벵들은  
별방 상코지로 환고향 시겼다.  
용궁 말줏뜰애기광  
문곡성 위는  
하라영산 부름목 앗아서  
알 동싱들<sup>ㅋ</sup>라  
“내가 여기로 앗아시니  
네이들,  
나를 우망이나 흐여라.”  
알 동싱들은 문곡성<sup>?</sup>라  
“게니 뭣을 좋아 흐십네까?”  
흐니.  
“돛이 전머리나, 쇠 전머리나,  
독이라도 전머리,  
온갖 바릇괴기라도 전머리로,  
머리 곶인 제숙으로  
나를 우망<sup>흐</sup>여라,  
또, 백시리, 배돌래,  
차귀 당산메,  
온갖 실과를 즐겨훈다.  
경<sup>흐</sup>민  
내가 잘 너의들 효심을 봐서  
만민<sup>조</sup>손을 그늘وا 준다.  
나를 너의들이 박접<sup>흐</sup>민  
삼년에 훈번,  
칠년에 훈번이라도  
풍문조화를 줄 것이다.  
정월 축일로 나를 우망<sup>흐</sup>라.”

제일 1월 축일.

<애월면 꽉지리 남무 48세 이상문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408-415.